

포장기계 선진화 · 자동화 토플 터 독창적인 제품 생산 주력

이일해 / 한국전자공업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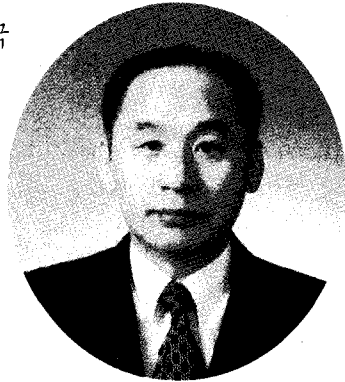
사 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 산업기계진흥회가 주관하는 정밀기기 우수 유공자 및 기업 표창식이 지난달 10일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국전자공업이 국무총리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일해 사장은 “포장기계 분야에 중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밝히며 “상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점으로 기술개발에 더욱더 매진해 자동화 기계 산업에 주역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곧바로 한국전자공업에 입사해 30여년을 포장 기계와 함께 해 온 이일해 사장은 이론과 실무를 두루 갖춘 전문 경영인이다.

“1968년 저의 아버님이신 이종각 현 회장님은 밴드실러 생산을 시작으로 한국전자공업을 설립하셨습니다. 저 또한 기계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터라 졸업 후 한국전자공업에 입사하게 됐고 1972년부터는 실질적인 경영을 하게 되



었습니다”라는 이 사장은 포장기계에 많은 매력을 느낀다고 한다.

한국전자공업은 우리나라 포장기계 국산화를 선도하며 그 기술을 인정받아 다량의 자동포장기계를 판매하고 있다.

주생산품으로는 “로타리 자동포장기”, “분체정량충전기”, “진공포장기” 등이 있으며 국내시장점유율 70~8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 전부터는 선진국의 기술수준에 맞춰 포장기계의 고급화를 위한 지속적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한국전자공업이 선보인 “봉지 이송에 따른 노즐 이동식 액체 점체 충전 포장기”는 속도와 생산성 면에서 기존 제품에 비하여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이다.

기존의 재래식 로타리 자동포장기로는 액체(삼프, 주방세제 등)를 플라스틱 필름 봉지에 내용물을 충전포장 할 때 기계의 정지구간에만 충전을 해야하므로 속도를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정해진 시간 동안에 충전량을 많이 하면 높은 압력으로 인해 접촉면에 오염

을 일으켜 접착불량을 초래하였다.

이러 문제점을 개선코자 한국전자공업은 1998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190백만원을 투자해 개발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80% 이상을 국산화 하는데 성공했다.

이일해 사장은 “이동식 노즐을 채택하므로 정지구간 뿐만 아니라 백(Bag)이 이동 중에도 충전할 수 있어 충전시간이 50~70% 정도 증가해 비교적 충전압력을 낮출 수 있어 액체가 튀어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지시간을 줄이고 이송시간을 늘려 주므로 완만히 이동이 이루어져 관성에 의한 액체의 출렁임을 현저하게 줄여주므로 재래식에 비해 약 50%이상의 생산속도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우수한 제품 생산으로 국내 포장기계 시장을 리드해 나가고 있으며 미국, 말레시아, 인도네시아 등 해외 기업과 수출을 위한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산업 분야로 볼 때 포장기계 분야는 규모도 작고 낙후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포장기계 분야는 황무지와도 같아 아직도 개척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라는 이일해 사장은 “국내 최고의 포장기계 생산업체로 자리매김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는 세계적인 포장기계 생산업체로 발돋움 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국전자공업은 2003년 1월경 인천 공단

지금의 세한미디어자리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는 좀더 내실을 튼튼히 하고 생산량을 늘려 cost 절감을 꾀하고자 한 것이라고 한다.

한국전자공업의 자랑은 장기근속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즉 많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된 발전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어려웠던 IMF 시절 임직원이 일심단결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는 이일해 사장은 한 가족 같은 임직원 모두에게 고마움을 느낀다고 한다.

때문에 이일해 사장은 학자금 지원과 직원 주택 마련시 무이자 대출, 동남아 여행 등 직원 복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일해 사장은 고기술 제품 생산을 강조하며 직원들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다.

“부존 자원 없는 나라로써 고 기술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중소기업이 독창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업계에서는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을 목표로 더욱더 연구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자동화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주역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국전자공업의 행보에 많은 기대를 해 본다. ko

권해진 기자